이 악물고는 입 벌린 줄 안다

(시편 81:1~16)

8.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9.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 악물고는 입 벌린 줄 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이 악물고는 입 벌린 줄 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 동시에 오해가 깊은 부분입니다. 오해의 구체적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를 악물고 있으면서 입을 벌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사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소신을 굳게 지키며 기꺼이 사약을 받는 충신들이 있는가 하면, 간신들은 사약을 받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발버둥 치다가 손발이 묶인 채 강제로 사약을 입에 들이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있으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입이 잘 벌어지지 않을 때에는 턱관절에 장애가 생겼을 때입니다.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입을 벌릴 때마다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질긴 것을 씹을 수 없고 귀 앞부분이 아픕니다.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의 말씀 중에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라는 표현대로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 악물고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입을 크게 벌리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곧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에 이를 악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조차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흔히 강청하는 것으로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요청하고 욕구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오해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입을 크게 여는 것이 아닌 이를 악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을 크게 여는 것은 하나님을 먹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먹으려고 할 때에만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이를 악물어야만 겨우 손에 쥘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함박눈이 내리면 눈송이를 받아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인체구조 자체가 고개를 하늘을 향할 때에 입은 벌어집니다. 버스 안에서 목을 젖히고 자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동으로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자면 침은 흘릴 수 있어도 입을 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을 향하고서 세상을 가지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할 때에 입은 벌릴 수가 없고, 하늘을 향할 때에만 입은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도 이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언뜻 생각하기에 표현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56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반짝거리는 것을 팔아 하나님을 산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주님께서 쓰신 표현이었습니다. '먹는다, 산다.'라는 표현이 경건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하셨고, 45~46절에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은 사람이 그것을 갖기 위해 있는 것을 다 팔아 밭을 산다고 하셨고, 또한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재산을 다 팔아 진주를 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곧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먹기 위해서만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 입을 크게 벌릴 수 없고 이를 악물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에서 세상 것을 원하고 있다면 이를 악물게 되고, 이를 악물기 위한 방편과 과

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하는 강청하는 마음은 이를 악물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서는 결코 세상 것을 강청할 수 없고, 마음이 세상 것을 향하고 있는 한 입을 벌리는 자세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 벌리는 것을 이를 악무는 것으로서 오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본 시는 이스라엘의 민족절기에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지던 때에 낭송되었습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로 추측됩니다. 내용적으로는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광야에서의 역사를 회고함으로 선민들에게 영적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회고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9~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10절과 11절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채우리라'라는 부분의 해석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주석에서조차 이를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로 대표되는 인생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집이나 차 그리고 명품 등의 세상 가치들입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입을 크게 열라는 표현이 세상살이의 필요들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으로서 해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생의 필요들을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 주시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강청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았다고 10~11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인생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강하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주시지 않았다는 이러한 해석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인생의 필요에 대한 것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이미 인생의 필요를 향해 이를 악물고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선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상 모든 폭동과 혁명과 개혁도 결국은 세상의 필요를 향해 입을 악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귀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이 말씀을 세상에 대한 요청으로 변형시켜왔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 광야생활을 살펴보면 선민들은 항상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인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입을 벌리는 이들의 태도가 못 마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11~12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선민들은 인생 필요에 대해 입을 크게 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정작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입을 열기 바라셨던 대상이 결코 세상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보면 하늘에 대해 입을 연 자들에게는 세상의 필요를 이미 공급하시려 작정하신 바가 있으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과 16절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도를 따르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말씀의 집합이 곧 여기서 말하는 '도'입니다. 이것을 향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입을 좁게 오므리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입을 악물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는 선민들이 가진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을 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선민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이미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가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었고 부추와 마늘과 파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전 인류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류는 돈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잃으면 두렵지요? 그러나 돈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돈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돈으로 채워진 마음이 비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속는 것입니다. 몸이 있어야 마음 채울 것들을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몸을 잃으면 마음 채울 길이 막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이 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마음을 채우려 세상 가치를 향하게 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아무리 채워봐야 하나님 크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먹어야 될 입으로 티끌보다 못한 돈을 먹으려 하니 입을 오므릴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면 대기하는 선수들이 해바라기 씨를 까먹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그들이 그 작은 씨를 먹기 위해 입을 어떻게 오므리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작은 소라를 먹을 때에 쪽쪽 빨아먹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입을 오므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했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입은 자연히 벌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시선이 땅을 향하자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 해바라기 씨나 소라 먹을 때처럼 입은 오므라듭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이렇게 하늘을 향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 접목하려 하였습니다. 돈을 향해 입을 오므리고 이를 악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잘되기를 비는 것을 입을 크게 여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16절에서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모든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충분히 먹는다면 이미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에서는 원수와 인생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채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며 세상에 최적화된 입모양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마음의 시선이 땅을 향하는 동안에는 결코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가다가 해바라기 씨같이 조그마한 먹을 것이라도 눈에 띄면 그것을 먹으려고 입을 오므리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기 위해서는 마음의 시선이 이 땅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 반드시 하늘을 향해야만 합니다.

9절에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라고 땅을 향하지 말 것을 연관 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란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본래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귀신이나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신이 아닙니다.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악한 영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다른 신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마음에서 특정한 가치들을 신격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신격화하고 자녀를 신격화합니다. 돈이나 자녀의 형통이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된다고 믿으면 그것이 곧 신격화인 것입니다. 내가 쌍꺼풀만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믿어서 성형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쌍꺼풀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신격화 시켜서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이와 연관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는데 내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면 나를 도와줄 영적 대상을 갈구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 신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이 우상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내 마음에 기쁨과 대상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그러한 신을 소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이 모두 인간이 이를 악물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면 하늘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먹고 나면 인생의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함박눈이 내릴 때에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받아먹으려고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때에 인생의 필요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지만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십자가 생활화가 허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턱관절은 이 세상의 마음의 시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를 갈거나 악물고 힘을 줄 때에 턱관절 장애가 생겨나기 쉽듯이, 마음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한 턱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이를 가는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할 때에 마음의 입은 저절로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허기진 배를 붙잡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도록 턱관절 장애의 극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필요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시는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영적인 턱관절 장애가 극복되게 하시며 땅을 향하여 이를 악물고 살

던 내 턱이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함포고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